삼국의 불교사상 수용과 그 특징

- 업설과 화엄사상 -

海 住(全好蓮)*

目 次

Ⅰ. 머리말
Ⅱ. 業說의 受用 事例와 관련 佛典
Ⅲ. 業說에 보이는 華嚴思想
1. 三國時代 華嚴部 經典의 전래
2. 業說에 보이는 華嚴思想의 구체적 내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삼국시대는 불교가 전래되어 토착화되어가던 시기에 해당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기의 불교는 교학적으로 연구, 실천되어 융성기를 맞게 됨을 볼 수 있다. 신라사에 있어서 이 때는 중대로 접어드는 시기이고, 수용기는 그 이전 중고기에 해당한다.

삼국이 불교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나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이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제3교육연구팀장
** 이 논문은 2001년도 두뇌한국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고 인정하면서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도록 이끌어간 것이다. 그리하여 단시일 내에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불교신앙이 전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왕이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고구려[1], 백제[2]) 는 영을 내리어 불법을 믿게 하였으며, 살생을 금하고(백제[3], 신라[4]) 복을 닦도록 하여 불법을 믿게 하였던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처음 불교를 수용하고 토착화한 시기에 일반에게 전달된 교리는 인과화복지설과 수복멸죄설[5] 등이었다. 이는 바로 업설을 토대로 한 교리이니, 이처럼 업설은 대표적인 수용기 불교의 특징이었다.[6]

그리고 삼국 각각의 불교의 특징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삼론, 백제는 계율, 신라는 법상 유식불교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는 화엄이 대표적인 불교사상의 위치를 점하였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별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화엄이 신라가 통일되면서 갑자기 중요하게 부상되었던 것인가? 화엄교학이 중대로 접어들면서 융성하게 된다고는 해도 그 바탕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화엄교학을 융성시킨 원효·의상이 신라 통일기 전후를 걸쳐 활동하였기 때문에 더욱 삼국시대에 이미 화엄교가 퍼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삼국시대에 수용된 화엄사상을 삼국 공통의 불교사상이라고 할

---

1)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9年 3月 條.
2) 『三國遺事』 卷3, 「興法」 3, 難陀闢濟條.
3) 『三國史記』 卷27, 「法王條」. 『三國遺事』 卷3, 「法王禁殺條」.
4) 『三國遺事』 卷3, 「原宗興法條」.
5) 위와 같음.
6) 수용기불교의 대표적인 특징을 수복멸죄의 업설로 보는 기존 연구업적으로서는, 김영태, 『한국불교사개설』, (경서원, 1986). 「삼국시대 서민들의 불교신앙」, 『한국불교학』 제12집, (한국불교학회, 1987).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9). 김상현, 「신라 중고기 업설의 수용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 제4집, (한국고대사연구회, 1991,1).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신라인의 죽음관의 변화」, 『한국고대사연구』 제20집,(2000, 12) 등의 논저가 있다.

수 있는 업설과 연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업설의 수용 사례와 관련 佛典

삼국에서 업설을 받아들여 수용한 자료는 별반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업설의 사례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상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업설은 계율정비와 윤리덕목의 함양에 기여했으며, 업보윤회사상으로 전개되어 의례의식을 통한 기원법회가 설행되게 하였으며, 불·보살상의 조성으로 미륵신앙·미타신앙·관음신앙·지장신앙 등 각종 신앙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업설은 대승경전의 유통과 대승교학의 형성에도 연관됨을 볼 수 있다. 『반야경』『법화경』『점찰선악업보경』 등만이 아니라 화엄경의 교설과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업설과 화엄사상과의 관련을 살피기 위해, 먼저 그러한 업설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계율, 윤리 덕목의 함양

삼국이 수용한 업설은 수복멸죄의 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날의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행하게 하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업설은 계율과 연결되고 사회윤리 의식을 진작시키는 일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불교교단 내에서의 계율의 강조는 자연히 일반 대중들 역시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7]

불교의 계율을 토대로 하여 신라사회에 윤리의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 인물은 자장(선덕여왕대, -636-643-)이다. 자장은 화엄 사상에 매우 심취한 듯하지만, 율사로서의 면모 역시 뚜렷이 보인다.[8] 자

7) 김상현, 위의 논문, p.40.

장은 『사분율갈마사기』 1권 (失), 『십송율목차기』 1권 (失)을 짓기도 하였다.[9] 자장은 사분율에 근거하여 교단을 정비하고 대승보살계를 보급하였다. 자장은 조정으로부터 대국통에 임명되어 승려의 모든 규칙을 통솔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승려들에게 매월 두 차례씩 계를 설하여 지계와 범계를 알게 하는 등 교단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노력했다. 이처럼 자장은 불교의 계율을 통하여 신라인에게 윤리의식을 고무시켰던 것이다.[10]

그러한 불교윤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행사로서 팔관회 및 백고좌회를 들 수 있다. 백고좌회는 『인왕반야경』에 기반을 둔 호국법회이기도 하다.

② 업보윤회설과 점찰법회

업설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게 하고 사회윤리 도덕 의식을 고양시켰는가 하면, 업설은 또한 업보윤회설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업보윤회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7세기 전반 신라에서 생겨난 빚 갚는 이야기가 있다. 즉 수나라 말경 신라에 어떤 스님이 10년간 한 신도에게서 공양을 극진히 받다가 죽은 후 그 빚을 갚느라고 그 신도집 정원의 고목에 버섯이 되었다는 내용이 『釋門自鏡錄』에 전하고 있다.[11]

죽은 후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윤회설은 추선에 의해 죽은자의 왕생극락을 빌게 하였다. 그것은 진흥왕대에 시작된 팔관회의 의례목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라사회에 업설과 윤회사상에 입각한 내세관

---

8) 이행구, 「한국화엄의 초조고- 자장법사의 화엄사상-」, 『동국논집』 제13집, 1994에서는 자장을 율사라기보다 화엄법사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9) 자장 당시에는 사분율에 주목하여 사분율이 한국승가가 지니는 계율덕목으로 정착하도록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주석이 많이 보인다.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참조.

10) 신종원, 「자장의 불교사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39, 1982, p.24.

11) 懷信, 『釋門自鏡錄』 上, 「新羅國禪師割肉酬施主事條」, (『大正藏』 51, p.812).

이 정착되어 갔다. 그것에는 원광의 점찰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진평왕 22년(600년)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세속오계를 설한 것으로 유명한 원광은 가슬사에 점찰보를 설치하고 점찰법회를 열었는데 『점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하였다.[12]

진평왕(579~632)대의 비구니 智惠도 남녀가 두루 참여하는 점찰법회를 행하였으며[13], 『삼국유사』의 「사복불언조」[14]에 의하면 사복이 어머니를 천도한 것을 기리기 위하여 훗날 사람들이 道場寺를 짓고 매년 3월 14일에 점찰회를 가졌다고 전한다. 사복설화에서는 사복 어머니의 3생에 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생에는 경을 싣고 다니던 소였는데, 금생에 인간으로 환생한 것은 경을 싣고 다니던 선보에 의한 것이다. 이어서 다음 생은 사복과 원효에 의하여 연화장계관에 왕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욱면에 관한 설화 역시 욱면비의 3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욱면이 전생에 부석사의 소로서 불경을 싣고 다녔는데 經力에 의하여 阿干 貴珍의 집 婢로 태어난 것이다.[15] 사복이나 욱면설화는 물론 신라중대에 접어든 시기의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신라중고기에 형성된 윤회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③ 불보살상 조성으로 신앙 유포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고 죄업을 소멸시키려 하였던 삼국시대 불교인들은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였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

12) 이 경은 여래장 사상과도 관련이 있으니, 점찰법회는 말세의 중생들이 진심으로 참회하여 여래장의 자성청정심을 확인시키려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진흥왕 37년(576)에 수에서 귀국한 안홍은 『능가경』과 『승만경』을 가져다 조정에 전했으니, <『삼국사기』4> 신라중고기의 불교계에는 여래장사상 계통의 경론이 유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상현, 앞의 논문 pp.47~48.>

13) 『三國遺事』 卷5, 「仙桃聖母隨喜佛事條」.

14) 『三國遺事』 卷4, 「蛇福不言條」.

15) 『三國遺事』 卷5, 「郁面婢念佛西昇條」.

보살상을 조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삼국에서 원불로 모신 소불상의 조성 기록을 보면16), 선망부모와 현생부모 또는 망처를 위하여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팔난을 떠나 모든 고통을 여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불국토에 왕생해서 부처님을 만나 불법을 듣도록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와 같이 조성된 불상에서 석가불만이 아니라 미륵불과 아미타불 신앙 등을 엿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미륵신앙은 초기부터 널리 성행하였음이 보인다. 국보 제85호인 고구려의 금동삼존불은 물론이고, 백제에서는 미륵사를 창건하였으며, 신라 역시 삼국유사 내에 관련자료가 많이 보인다. 미륵사상은 바로 전륜성왕 사상과 연결되니 미륵이 하생할 국토에 전륜성왕이 정법을 부지런히 행하고 정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신라의 미륵불 상징으로서는 국선 제도가 있다. 전륜성왕의 치세에 미륵이 하생하여 성불한다는 것이므로 미륵을 상징하여 국선의 제도를 만들어 신라에 전륜성왕 치세의 이상국토를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륵신앙은 도솔천에 대기중인 미륵보살을 친견하려는 도솔왕생 신앙이기도 하다. 후에 아미타 신앙이 성행하자 도솔천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더욱 발원하게 되었으니, 삼국인의 사후세계는 도솔천과 극락임을 알 수 있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성도사례를 보면17) 당시까지도 미륵신앙이 미타신앙보다 앞섰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륵불이 된 노힐부득의 도움에 의해 달달박박이 아미타불이 될 수 있었으며, 또 아미타불이 된 달달박박은 금물이 모자라 알록달록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겠다.

---

16) 甲寅年 (594 혹은 654年)銘 釋迦像 光背(黃壽永編, 『韓國金石遺文』, pp.242~243), 大和 13年(489)銘 石佛像 (李蘭映編, 『韓國金石文追補』, pp.53~54.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古代편, pp.17~18 等), 癸未年 金銅三尊佛像銘 (『韓國金石遺文』, p.240 등), 永康 7年(고구려) 金銅彌勒像光背銘 (『韓國金石遺文』, p.238 등), 建興5年 金銅佛像光背銘(『韓國金石遺文』, p.239 等), 甲申年, 金銅釋迦坐像光背銘 (『韓國金石遺文』,p.241 等).

17) 『三國遺事』 卷3,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條」

延嘉 7年(고구려 제20대 장수왕 7년 기미, 419년)銘의 金銅如來立像 <국보 제119호>은 현겁천불(第29 因現義佛) 신앙임을 말해준다.[18] 그 불상은 고구려 樂良 東寺에서 40여명이 "모든 악취와 괴로움의 환을 떠나 금계에 머물러 안온을 얻게 하여지이다"라고 발원하면서 조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현겁천불 신앙은 『現劫經』(축법호 역, 300년)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19] 이외에도 신라 良志가 문무왕 13년(673년)에 삼천불을 조성하였음도 전해진다.[20]

보살상으로는 자장 스님의 부모가 관음상을 천부 조성하였음이 보인다.[21] 그 공덕으로 자장이 태어났다고 하니 관음상을 조성 신앙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관음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 전해진 관음상을 통해서이다. 일본인 行善은 고구려에서 구법할 때 관음보살을 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22] 백제에는 發正이 梁나라에 유학하였다가 귀국도중에 경험한 관음영험 이야기가 있다.[23]

지장보살상 역시 일찍부터 모셔졌음을 볼 수 있다. 성왕이 조성한 지장존상이 위덕왕 577년에 일본 법융사에 모셔졌으니, 이는 일본 최초의 지장상이기도 하다. 지장보살은 점찰경의 설주이기도 하니 점찰법회와 밀접한 관련속에서 지장신앙이 성행되었다고 하겠다. 지장신앙은 점찰법회에서도 보인 것처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대표적인 신앙이다.

이처럼 보살상의 조성으로는 역시 미륵신앙과 관음신앙 그리고 지장신앙등이 크게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승경전의 유통과 업설

---

18) 金煐泰, 「高句麗 因現義佛像의 銘文과 千佛신앙」, 『韓國佛敎史正論』, (불지사, 1997), p.21.
19) 위의 책, p.24.
20) 『三國遺事』 卷4, 「良志使錫條」.
21) 『三國遺事』 卷4, 「慈藏定律條」.
22) 『元亨釋書』 16, 「力遊」9, 『續日本記』8. 「扶桑略記」6, 元正天皇條. 『本朝高僧傳』67 「遠遊」8 等.
23) 『法華經傳記』6, 越州觀音道場道人, 觀世音靈驗記 等.

업설은 관련경전의 유통을 원할히 만들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각종 의례와 불보살 신앙으로 유추해 볼 때, 그와 관련된 대승경전들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경전 외에도 상당수의 대승경전이 유통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화영험전』[24]에 의하면 7세기 전반 신라에서는 법화경을 널리 독송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통일의 전후에 활동한 경흥과 의적은 무량수경의 주석서[25]에서 유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적은 道證(7세기)과 함께 유식사상을 선양하였으며, 도증의 유식은 태현에게로 이어진다[26]. 그리고 혜공과 대안은 그의 서민교화행에서 볼 때 공사상을 깊이 이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라통일기 전후에 활동하면서 남긴 원효의 저술과 저술에서 인용한 문헌들을 보면 원효 당시까지 유통된 수많은 불전과 그 가운데 업설과 관련되는 대승경전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일본 「善光寺緣起」에서는 백제의 청관음경 신앙사실을 볼 수 있다. 일본의 선광사에 봉안된 일광삼존미타불상을 生身如來라고 하는데 이 생신여래가 백제에서 전래하였다는 것이다. 이 생신여래의 전거가 되는 『청관음경』의 내용은 바로 업보설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生身여래 신앙은 미타삼존불이 본불이라면 삼존금불상은 新佛이며, 신불신앙은 新佛國淨土신앙이니, "백제는 새 부처님의 나라" 즉 백제는 佛緣國이라는 것이다.[27]

또한 신라에는 화엄사상의 영향으로 생겨난 설화가 자장·의상·원효를 중심으로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으니 화엄부 경전의 유통도 당연히 전제된다고 하겠다. 그러한 삼국시대에 유통된 『화엄경』과 화엄사상은 업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4) 『法華靈驗傳』 上, 「通交二世之爺纏條」 (『韓佛全』6, p.550上).
25) 憬興, 『無量壽經演義述文贊』 下, (『韓佛全』2, p.71).
義寂, 『無量壽經述義記』下, (『韓佛全』2, pp.344~345).
26) 李萬, 「新羅 道證의 唯識思想」, 『伽山學報』 3, pp.35~36.
27) 김영태, 「백제의 청관음경 및 생신여래신앙」, 『한국불교사정론』, p.87.

Ⅲ. 業說에 보이는 華嚴思想

1. 三國時代 華嚴部 經典의 傳來

① 經論의 전래시기에 따른 추정

업설과 관련된 삼국시대의 화엄사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당시의 화엄부 경전의 전래와 유통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삼국에 경전이 전래된 사례와 연대를, 화엄부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된 시기와 대조해서 연대순으로 도시해본다.

<표> 화엄경론의 번역자 및 번역시기	삼국시대 경론 전래의 사례와 연대
『도사경』(後漢 月支國 支謙 譯)	
『보살본업경』(支謙 譯)	
『여래흥현경』(축법호<239-316> 역)	
『점비일체지덕경』(축법호 역)	
『보살십지경』(축법호 역)	
『보살십주경』(축법호 역) .....等	
	372년 고구려 불교공인(前秦王 불상과 경문을 보내 옴)
	384년 백제 불교공인(동진, 마라난타)
	백족화상 曇始가 동진 大元 末(396년)에 경을 수십 부를 가지고 요동에 와서 교화함. <『해동고승전』1>
구마라집 (401년에 중국에 들어 감)	
	승랑, 동진(381~419)시대 말, 요동에서 활약, 삼론과 화엄에 능함.<『양고승전』8>
『六十華嚴』(불타발타라 역, 418~420년)	
『十地經論』(북위, 보리유지. 륵나마제 역)	
靈辨이 『화엄론』 100권 찬술, 520년	

527년 신라불교공인,
백제 성왕 19년(541), 양나라에 열반경 등을 청함 <『삼국사기』26, 「백제본기」4, 성왕19년조>

『섭대승론』(진제 역, 546년)
..... 等

6세기후반, 유학승들이 많이 귀국함.
신라 明觀, 진흥왕 26년(565), 陳에서 불교경론 1700여권(혹 2700권)가지고 돌아옴.<『삼국사기』4,「신라본기」4 진흥왕 26년조. 『해동고승전』2>
安弘, 『능가경』, 『승만경』 등을 가지고 귀국 <『삼국사기』4, 「신라본기」4, 진흥왕 37년조>
원광 귀국시(600) 불경을 가지고 귀국함

자장, 643년에 귀국시 경율론 삼장 400여 상자 싣고 오다. <『해동고승전』2 등>

이상에서 화엄부 경론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몇 가지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고구려와 백제에서 불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때까지 번역된 도사경 등 화엄부 경전이 전래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여부는 알 수 없다.

둘째, 백족화상이 경율 수십부를 가지고 요동에 들어왔을 때(396); 화엄부 경전이 삼국에 전래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세째, 신라 明觀이 1700여권의 경론을 갖고 왔을 때(565); 그때까지 번역된 화엄부 경론(『보살십지경』 등의 화엄부경전, 『60화엄』, 『십지경론』, 『섭대승론』 등)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나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넷째, 안홍과 원광이 대승경전을 가지고 귀국할 때; 역시 명관처럼 그때까지 번역된 경론을 갖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다섯째, 자장이 경율론 삼장 400여 상자를 갖고 당에서 귀국할 때

(643); 60권 화엄경과 그때까지 번역된 화엄부 경론도 전래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자장이 원녕사 낙성회때 설한 화엄만게는 60권 『화엄경』 「입법계품」의 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자장 당시까지는 60권 『화엄경』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② 신앙사례에 따른 추정

삼국에서 불보살상을 조성하여 신앙한 것을 보면 석가불·미륵불·아미타불과 미륵보살·관음보살·지장보살이 주 신앙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관음신앙은 화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 정법사에 모셔진 관음상은 고구려 光明寺의 관음상인데 德胤법사가 일본의 성덕태자(574~622)로 하여금 봉안하게 해서 정법사를 지어 모셨다는 이야기가 일본 頂法寺 緣起[28]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고구려에 관음상이 모셔진 광명사가 있었으며 그 고구려의 관음신앙이 일본에 전해졌고 광명사의 관음신앙은 화엄 관음임을 알 수 있다.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은 남방 光明山에 주처하고 있으며, 그 광명산에서 '大悲行門 光明之行'을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29] 관음상을 모신 광명사는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주처인 광명산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음보살은 광명산에서 이로 볼 때 당시(574년~622) 고구려에 이미 『화엄경』이 전래되어 있었으며, 그 『화엄경』에 의한 관음 및 관음주처인 광명도량의 신앙까지도 정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30] 日僧 行善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때(718년) 고구려에서 그가 조각한 관음상을 모셔가서 흥복사에 안치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31]

---

28) 濟北 沙門 師錬 撰, 『元亨釋書』 卷28, 志2 寺像志6. 皇圓 撰, 『扶桑略記』.
29) 『六十華嚴』, 「入法界品」(『大正藏』 9, pp.717下~718中).
30) 김영태, 「고구려 관음신앙의 특성」(한국불교사정론, pp.12~15).

반면 신라에서는 의상에 의해 낙산사(낙산은 補怛洛迦山의 약칭, 80권 『화엄경』에서의 관음주처임)가 관음 도량으로 개설되었다. 의상은 백화도량발원문을 통해서 관음신앙을 화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의상에 의해 화엄 관음신앙이 펼쳐지기 전, 이미 자장이 화엄 문수신앙을 펴기도 하였다.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화엄 범게를 받아온 자장은 귀국 후 자국의 오대산에 문수도량을 개설하고 문수신앙을 폈던 것이다.[32] 자장이 『화엄경』을 실천적으로 수용했음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경이 전독되고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화엄결사운동으로까지 발전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자장이 귀국한 후 60여년 만에 오대산에서는 본격적인 화엄신행 단체가 성립되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화엄부 경전이나 『화엄경』이 574년경에 고구려에 전래되어 있었고, 신라에는 적어도 자장 당시에는 『화엄경』이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화엄경』 강설과 주석에 따른 추정

삼국시대는 화엄부 경전 내지 여러 경론이 전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되거나 그에 대한 주석서가 저술될 만한 단계는 아니었다. 삼국이 통일된 뒤에 원효(618~686)나 의상(625~702)에 의해서 비로소 여러 가지 주석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전의 강설이나 중국에 전래된 논서나 주석서들에 대한 문답 등을 통해 『화엄경』의 전래사정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화엄경』과 관련된 최초인물은 고구려 승랑이다.[33] 승랑은 동진(381~419)시대 말기에 활약한 고구려출신 승려로서 화엄과 삼론에 능통하

31) 각주 22) 참조.
32) 「慈藏定律條」 卷3, 「台山五萬眞身條」(『三國遺事』 卷4) 等.
33) 『梁高僧傳』 8, 「法度傳」(『大正藏』 50, p.380下).

였다고 하나, 중국에서 활동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삼국에서 가장 먼저 화엄과 관련된 이는 누구이며, 그로 볼 때는 화엄부 경전이 언제 삼국에 전래되고 유통되었는가?

고구려에서의 『화엄경』 유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義淵과 法上의 문답을 통해서이다[34]. 의연은 平原王 18년 (576)에 北齊(550~577)의 定國寺 法上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물어 보았다. 그 가운데 『十地』·『智度』·『地持』·『金剛般若』 등의 諸論은 누가 지었는지 질문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은 고구려 불교계의 대승경론 연구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내지는 『십지경론』의 전래까지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의연이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십지경론』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십지론을 보고 들었을 것이니, 이로 볼 때 576년 이전에 『『십지경론』』이 고구려에 유통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연에 의해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35]

신라 圓光[36]은 진평왕 11년 (589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陳과 隋나라에서 『성실론』, 『섭대승론』 등의 강의를 들었다. 진평왕 22년(600년)에 귀국하여 대승경교를 강설하였으며, 『如來藏經私記』와 『大方等如來藏經疏』를 저술하였다고 한다[37]. 따라서 원광은 귀국할 때 『섭대승론』과 여래장경 등을 구해 가지고 왔을 것으로 짐작되며, 『섭대승론』과 여래장경은 화엄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화엄관계 전적들도 가지고 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화엄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이 보이는 것은 자장부터이다. 자장은 선덕여왕 5년(636년)에 섭론종의 法常의 명망을 사모하여 당으로

---

34) 『續高僧傳』 8, 「法上傳」(『大正藏』 50, p.485中). 『海東高僧傳』 1, 「義淵傳」(『大正藏』 50, p.1016中~下).

35) 章輝玉, 「삼국시대의 화엄경 전래와 法藏和尙傳에 대한 재고찰」(『韓國佛敎學』 14輯, 1989, p.175).

36) 「圓光西學條」(『三國遺事』 卷4), 『海東高僧傳』 卷2, 圓光(『大正藏』 50, pp.1020下~1021下). 『續高僧傳』 卷13, 圓光(『大正藏』 50, pp.523下~524中).

37)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東國大出版部, 1976), p.7.

건너가 법상으로부터 보살계를 받았으며, 정관17년 (643)에 귀국할 때는 경율론 삼장 400여 상자를 싣고 돌아왔다.

그때 『화엄경』을 전래하였을 것으로 확신되는 내용으로는 자장이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어 낙성법회를 할 때 『화엄경』 만게를 설하였음이 전해진다. 만게는 60권 『화엄경』의 3만 6천 게송 가운데 『입법계품』의 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엄 만게를 설하자 52녀가 나타나 증명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53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식수라 하였다고 함도 『입법계품』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화엄대경인 60권 『화엄경』 (418~420 불타발타라 역)을 자장이 귀국할 때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자장 이전에 이미 전래되어 있었음이 확실시 되는 것이다.

2. 업설에 보이는 화엄사상의 구체적 내용

이상에서 볼 때 화엄부 경전이 574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고구려에 들어와 있었고, 60권 『화엄경』이 자장(643)에 의해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엄부 경전의 지분경이나 별행경 또는 화엄대경인 60권 『화엄경』이 삼국시대에 이미 전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삼국시대에 유통된 화엄부 경전이나 주석서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업설과 관련하여 살펴볼까 한다. 먼저 유식법상종의 順憬이 『화엄경』설을 믿지 않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매우 충격적인 「順璟捺落迦」 설화[38]가 있다.

순경은 입당하여 현장(602~664) 문하에서 수학하고 신라로 돌아와

38) 「新羅國順璟傳」(『宋高僧傳』, 卷4).

활동했다. 순경생존시 동문 규기에 의하여 쓰여진 『인명입정리론소』의 내용을 보면, "신라의 순경법사는 그 명성이 당나라에 떨쳤고 그 학문은 대소승을 포함하였으며, 업은 가섭을 숭상하여 두타행을 하였고 마음으로는 소욕지족에 힘써서 언제나 욕심이 없기를 노력했다. 이미 당나라에서 학문을 닦고 그 빛을 신라에 전했으니 그 명성과 도가 날로 새롭고 승속이 모두 공경했다. 비록 용상이 적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였다. 그처럼 유식의 입장에서 두타행에 힘쓰고 있었던 순경은 『화엄경』 중의 "初發心時便成正覺"[39]이라는 구절을 보고 비방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경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순경나락가 설화가 찬녕의 『송고승전』에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것이다.

> 순경은 『화엄경』중의 "始從發心便成佛已" 라는 구절을 보고 비방하여 믿지 않았다. 혹은 이르기를 당장 손발을 묶고 제자들에게 명해 부축해서 땅으로 내려감에 땅이 서서히 열리자 순경의 몸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빠졌던 것이다. 지금도 길이가 10여 척이나 되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를 順憬捺落迦라고 부른다.[40]

이는 당시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인 유식법상의 자리를 화엄에게 물려주게 됨을 나타낸 이야기로 비치는 것이다.[41] 그런데 이 설화는 『화엄경』을 비방한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는 업보설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또한 당시 『화엄경』 중에 60권 『화엄경』 「梵行品」의 "초발심시변성정각"이 대표적인 구절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설화 내용에는 "始從發心便成佛已"이라고 되어 있으나, 『화엄경』에는 "초발심시변성정각"이라고 되어 있다.[42] 그리고 의상이 60권 『화엄경』의 핵심내용을 읊

39) 『六十華嚴』, 「梵行品」(『大正藏』 9, p.449下).
40) 『大正藏』 50, p.728上.
41) 김상현, 「신라법상종의 성립과 순경」(『가산학보』 2, p.82).

은 「법성게」[43]와 80권 『화엄경』의 전체 구성을 읊은 약찬게에는 다 같이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한국화엄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어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신라에서 화엄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은 자장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자장이 활동했던 시대는 화엄이 중국에 전래되어 번역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되거나 그에 대한 논서가 저술될만한 단계는 아니었다. 자장 대까지는 중국에서도 『화엄경』이 번역되거나 신앙되는 단계에 머물다가 지엄(602~668)이나 법장(643~712) 대에 이르러 비로소 『화엄경』이 연구되고 그에 대한 주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장은 선덕여왕(636~643) 대에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受法하였으니, 문수보살로부터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則見盧舍那"[44]라는 게송을 받은 것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다. 자장은 60권 『화엄경』의 게송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삼국유사』에는 80권 『화엄경』의 게송이 담겨있는 것이다.

자장은 자신이 태어난 집을 절로 만들어 원녕사라 하고 낙성법회때 화엄만게를 설하였다. 그때 52명의 여인이 나타나 증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화엄경』의 선지식을 기리어 53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식수라 하였다고 『삼국유사』에 전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화엄만게는 60권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게송이고 선지식 역시 『입법계품』에 출현하는 선재동자의 선지식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하여 보살도를 완성함으로써 법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깨달음의 완성을 보인 것이다.

---

42) 695~699년에 실차난타에 의해 번역된 80권 『화엄경』에는 "初發心時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大正藏』 10, p.89上.)라고 번역되어 있다.

43) 「一乘法界圖」(『韓佛全』 2, p.1).

44) 『八十華嚴』, 「須彌頂上偈讚品」(『大正藏』 10, p.82上).

그런데 이러한 자장과 화엄과의 인연 역시 화엄보살도와 업설의 연관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선지식들 중에는 과거전생의 이야기를 선재에게 펼쳐놓은 분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主夜神(夜天)들과 구바녀가 선재의 질문에 응하여 과거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주야신과 구바녀는 여성선지식들로서 화엄보살도중 가장 자비가 수승한 계위인 십지보살도를 상징하는 선지식들이다. 그리고 등각의 계위를 상징한 마야부인 선지식과 함께 그들의 과거생 역시 항상 여자몸이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재동자의 34번째 선지식인 喜目觀察衆生夜天(80권『화엄경』에서는 희목관찰중생주야신)[45]은 지난 세월 수많은 겁전에 왕의 딸로서 야천신의 깨우침을 받고 부처님을 뵙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을 내었으며, 그때부터 세계의 띠끌 수 겁을 지내오면서 항상 부처님을 만나 공양올려 큰 세력으로 널리 기쁘게하는 당기 해탈을 얻었고 이 해탈로서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한다는 것이다.

또 36번째 선지식인 적정음야천(적정음해주야신)[46], 38번째의 개부수화야천(개부일체수화주야신)[47], 39번째의 願勇光明守護衆生야천(대원정진력구호일체중생주야신)[48], 41번째의 瞿夷(구바녀)[49], 42번째의 마야부인[50] 선지식이 모두 과거생에 세운 원으로 화엄보살도를 가르치는 선지식이 될 수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지식을 상징하는 지식수를 심고『화엄경』을 설하였으며, 화엄문수 신앙을 오대산에 널리 펴고 받들었을 만큼 자장은 화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장은 화엄법사라기보다는 자장율

45)『六十華嚴』52,「入法界品」(『大正藏』9, pp.724上~728下).
46)『大正藏』9, p.743中.
47)『大正藏』9, p.741上.
48)『大正藏』9, p.745下.
49)『大正藏』9, p.754下.
50)『大正藏』9, p.761下.

사로 손꼽히고 있다. 자장은 사분율을 주석하였고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많은 이들에게 계를 설하여 주었다. 그런데 자장이 『화엄경』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볼 때 그의 계율관 역시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계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자장의 계율관은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지계바라밀의 실천덕목인 十善業道와도 관련됨을 추정할 수 있다.

십선업도는 살생·투도·사음·망어·악구·양설·기어·탐·진·치 등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니, 보살은 성품이 원래 그러한 악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십선업도는 「십지품」의 제2지에서 닦는 지계바라밀의 수행덕목인데 지계바라밀은 십지품만이 아니라 『화엄경』 전체에서 골고루 닦는 보살행의 주요내용인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화엄경』의 전래와 유통은 자장에 의해, 또는 그 이전(574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화엄사상은 삼국시대 불교사상의 특징인 업설과 관련됨을 살펴보았다.

『화엄경』이나 화엄사상과 관련시켜 본 업설은 소승적 업설이 아니라 대승중에서도 일승보살도와 깊은 연관을 가진 것임을 볼 수 있다. 유식법상 교학에 통달한 순경이 『화엄경』에서 교설한 "초발심시변성정각"을 믿지못하여 생함지옥했다는 설화는 신라에서 대표된 불교사상이 유식에서 화엄으로 자리를 옮겨감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면서 의상과 원효 등에 의해 교학적 발전을 해나가게 되었으며, 자장이 오대산에서 다시 한번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함은 자장이 화엄종의 초조가 될 수 없었음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 볼 때 화엄사상의 연구발달은 신라중대에 들어서면서 의상과 원효의 본격적인 저술과 제자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으나, 삼국시대에 이미 『화엄경』이 유통되었으며 업설과 관련하여 화엄사상이 신라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Abstract

Assimilation of Hwa-eom Thought into Buddhism of the Three Kingdoms

- The Law of Karma and Hwa-eom Thought -

Hae-ju Jeon

The present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of karma, which is said to be the common foundation of Buddhism, and Hwa-eom Thought introduced into the Three Kingdoms.

As we know, whil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literatures containing mention that Buddhism of the Three Kingdoms accepted the law of karma, we can easily see that there are several instances connected with the law of karma in Buddhism of the Three Kingdoms. The law of karma was conductive to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precepts. The prevalence of Buddhist mass for worldly happiness as well as for the dead in those days can be also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the law of karma. Also, the law of karma wa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Mahāyāna Buddhist Thought, especially Hwa-eom Thought in the Three Kingdoms.

Considering the records on the transmission of Hwa-eom texts and the instances of Hwa-eom faith, and the appearance of

the commentaries on the *Hwa-eom-kyeong* in those days, it is quite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that the *Hwa-eom Kyeong* itself was introduced and circulated by Master Ja-jang of Shilla Kingdom(A.D. 574), or even by someone who worked before him.

The law of karma expressed in the *Hwa-eom Kyeong* and Hwa-eom Thought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ekayānabodhisattva among the views of Mahāyāna Buddhism. A tale that Master Sun-kyeong who was well versed in the philosophy of the Yogacāras descended into hell because he did not believe in the teachings of the *Hwa-eom Kyeong*, shows that the main trend of Shilla Buddhism was moving from Yogacāra Buddhism to Hwa-eom Buddhism.

It is assumed that the *Ten-thousands Gāthās of Hwa-eom* discoursed by Ja-jang corresponds to the shi-zh-pin of the 60 volumes of the *Hwa-eom Kyeong*, the female sages appeared in the shi-zh-pin, whom young Sudhana met, frequently talked about the karma of past lives. This shows that they became sages owing to their good karma. Also, the fact that Ja-jang's view of mahāyāna Buddhist precepts has correlation with the ten-good-karma mentioned in the shi-zh-pin should not be unheeded.

It is well known that Buddhist Thought was highly developed by Master Ui-sang and Master Won-hyo in the Unified Shilla. From the tale that Master Ja-jang hoped to see Mañjuśri-bodhisattva at Mountain O-dae once more but eventually he could not do so, Master Ja-jang may not be the founder of the school of Shilla Hwa-eom. From these, It is true

th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wa-eom Thought was carried out by Master Ui-sang and Master Won-hyo since the middle period of Unified Shilla Dynasty.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 *Hwa-eom-kyeong* was already transmitted to Shilla and circulated among the mass of people, and Hwa-eom Thought, especially associated with the law of karma, influenced on the thoughts of those days.